라훌라 공부를 성숙시키는 부처님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⑤ 〈라훌라경〉

〈잡아함경〉은 구나발타라의 번역으로 50권 1,362경이며, 〈상윳다라 니까야〉는 2,875(혹은 7762, 2889, 2908, 2904)경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56개의 주제별로 교학과 수행, 인물,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 수행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참수행자와 초발심한 재가자, 비불자들을 위한 법문이기보다 이미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교학과 수행이 깊어져 가고 있는 구참수행자들을 위해 깨달음의 실현 방법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경전이다.

라훌라는 7살에 사리불을 은사로 출가하여 개구쟁이 시절에 수행자들을 애먹이다가 부처님께 첫 가르침을 들으니 〈중아함경〉(암발랏티까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다. 발 씻는 물이 담긴 그릇을 통해 고의로 거짓말하면 하찮은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말씀과 거울의 비유로 항상 자신을 관조해야 청정한 수행자가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라훌라는 정진을 시작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조용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비구 가운데 라훌라가 제일이라고 하여 밀행제일이 되었다.

〈잡아함경〉 인물편의 〈라훌라경〉이 세 편(8권 198,199,200)이 있는데 라훌라의 공부가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부처님, 의식이 있는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보아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오만으로 가득한 번뇌와 망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망상이 사라지면 차별된 생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참 좋은 질문을 하니 기특하다고 칭찬하신다.

"네가 보고 느끼는 그것이 물질이든 과거, 미래, 현재 혹은 안이나 밖이나, 혹은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라. 오직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거라. 그렇게 보면서 '이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알음알이로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몸과 모든 인연들이 나라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오만으로 가득한 망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이 차별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에 대해서도 애착하지 않게 되어 곧바로 해탈할 수 있단다."

라훌라는 그렇게 차별 없는 경계에 들어가 행복해질 때 쯤,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한다.

"부처님, 저를 위해 거룩한 법문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 듣게 될 법을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정진하며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도 다 이루어 할 일을 마쳤으니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수행이 높아지도록 큰 가르침 주소서."

이 말은 들으신 부처님은 라훌라의 마음에 해탈할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증상법(增上法)을 주어도 소화할 수 없음을 아시고 물으셨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오온(五蘊)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을 위해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 관해 가르치고 오너라."

부처님은 그로부터 계속 라훌라에게, 육근(六根)을, 니다나(Nidana 인연, 연기)에 대해서도 가르치라 하셨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위해 가르쳤던 법에 대해 홀로 진중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 또 관찰하였다.

라훌라는 이론적으론 다 알지만 실제 수행이 모자란 것을 부처님이 수행이 깊어지도록 교육시키는 장면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가능하다. 우리도 부처님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며 공부의 수준을 높여가며 멋진 불자가 되자.

〈서울 반야사 주지〉

'잠' · '배고픔' 이 곧 선지식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④ 생활 속 수행

선지식이 계신 수행 장소란 일반 선방처럼 정갈하고 조용한 도량이 아니었다. 지저분한 쇠똥 치는 젖소 목장이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목장의 일은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하였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저분하다는 판단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야 할 것이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두려움이 참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당시는 1일 2식,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쉴 사이 없이 일하니까 오후가 되면 상당히 배가 고팠다. 선생님 몰래 밖에 나가 빵이라도 사먹을까?

"배고픈 거 어떡하지요?"

예상되는 선지식의 대답을 뻔히 알면서 또 묻는다.

"배고픈 생각이 참이 아니니 그 배고프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루 종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며 잠드는 시간은 약 10시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잠패기인 나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잠이 쏟아져 괴롭다는 생각 역시 참이 아니니 착각인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올라오는 각종 본능을 정성껏 바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본능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바쳐지며 배고픔이나 잠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잠과 배고픔이 줄어들며 시끌시끌 끓어오르는 각종 생각들도 동시에 차츰 줄어 들었다. 마음이 점차 평화롭게 변하는 것이다.

이제 〈금강경〉 공부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공부법을 이제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 간화선 수행자들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스승의 곁을 떠난다 하지 않았나? 나는 언제쯤 이 도량을 떠나서 홀로 서기 공부가 가능할 것인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목장의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셨다. 스승없이 공부하는 것을 즐기며 며칠 동안이나 계속 선생님 방을 노크하지 않은 나에게 "매일 아침 법당에 들어 오거라"하는 말씀을 하시었다.

매일 아침 법문 시간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별을 내놓는 시간이었다. 내놓은 자신의 각종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책을 하시어 해로운 분별심을 제거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이었다.

"소젖 짜는 일이 간단지 않습니다. 젖 짜는 방법이 젖짜기 어렵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침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여쭐 말씀이 없었지만 매일 법당에 들어오라 하시어 억지로 여쭌 말씀이었다.

"소젖을 짜며 부지런히 젖짜기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거라. 부지런히 바치면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일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다. 안된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바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되어 사라지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자 나의 질문꺼리는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동양학문과 서양학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양학문이란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밝은이들이 직관으로 말씀해놓은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요, 서양학문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치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합리적으로 알도록 써놓은 학문인 것이다."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이요, 아무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 사서삼경을 말씀하신 공자님같은 옛 어른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잘 아는 밝은이의 말씀이라는 말에 다소 의문을 들었다.

"공자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우주의 이치를 잘 아는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공자님은 불세출의 과학자라는 아인슈타인과 비교해서 우주의 이치를 잘 아는 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반야지혜 살려 쓰는 大活口

시(是)는 언전대기(言前大機)인 반야지혜로서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당처이며, 제불보살의 불모(佛母)로서 '이 뭣고'는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대활구(大活口)이다.

시 속에는 부처님 암호밀령(暗號密令)이 다 들어 있고,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구족(具足)되어 있고, 과거 억겁으로 부터 지어온 업장과 습기와 번뇌망상을 모두 녹여 주는 자가 발전소이며, 지혜광명이 천남(千萬)의 태양보다 더 밝게 항상 비춰준다. 또한 아프면 약사여래불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관세음보살이 자동적으로 되어준다.

'이 뭣고' 시심마(是甚　)는 내가 누구이며, 참나를 찾는 수행이며, 시는 인과를 벗어난 인과불락(因果不落)의 자리이다.

남악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 "시심마물임마래(是甚　物恁來)?"하고 물었다. 즉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 육조 스님은 입이 딱 막혀 대답을 못하고, "이 물건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화두를 갖고 8년간 고행(苦行) 끝에 확철대오 하고 다시 찾아가 "설사일물즉부중(設似一物卽不中)"이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 "도리어 수증할것이 있느냐?" "수증즉불무(修證卽不無) 오염즉불(汚染卽不)=닦고 증(證)하는 것이야 없지는 않습니만는 오염(汚染)될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즉 일여 평등의 진리를 차별심을 갖고 자타(自他), 고하(高下), 시비(是非)하는 것은 없습니다고 하여 인가(認可)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이 뭣고' 화두가 유래된 것이다.

호미 들고 밭메러 가는 것도 생사해탈 도리
생활 속 마음챙김이 모든 장애 벗어나게 해

이후 대혜종고 스님에 이르러 간화선이 체계화 됐으며, 서장서 화두의 역할은 분별(分別) 망상(妄想)을 확실하게 때려잡는 무기(武器) 즉 청룡보검으로 간화선을 정의하였고, 좌선 만을 강조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화두를 놓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한암 스님의 서신 중에도 "꼭 부처님 앞에서 참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 복잡한 가운데서 득력하는 것이 적정한 곳에서 좌선하는 것보다 10만배나 더 힘이 있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강 선사께서도 "참선은 농사지으며 왜 못혀? 생활 참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 끊고 여의고 돌아와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이 뭣고만 하는 건 그건 쪼가리 참선이요, 절름바리 참선이요, 소승참선 이지, 대승참선이 아녀. 농부가 쟁기를 지고 논 갈러 가는 것도 생사 해탈의 도리요, 여인네가 호미 들고 밭 메러 가는 것도 생사해탈의 도리요,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도 생사 없는 해탈의 도리인데 일체가 무엇이 아닌 것이 있으리오. 뭐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고 내 찾는 법이 그려. 그저 '이 뭣고' 알수 없는 놈 하나면 그만이여. 밥 먹고 옷 입고 오고가는 소소영영한 주인공,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알수 없거늘 제가 무슨 이치를 붙여서 죽이지 말고,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알 수 없는 그 놈 하나를 갖고 비비고 나가라"고 하셨다.

간화선 '이 뭣고' 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에게도 정치나 사업, 직장, 학업등 에서 막히는게 없게 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장애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을 등지면 무엇을 하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만다.

그때마다 '아이고' 라는 자조와 한탄 대신 '이 뭣고' 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